

## 어머니용 양육의미척도 개발연구 : 영아 어머니를 중심으로\*

Development of Meaning of Parenting Scale for Mothers :  
Focusing on Mothers of Infants and Toddlers\*

김연숙(Yeonsook Kim)<sup>1)</sup>

이중희(Jonghee Lee)<sup>2)</sup>

### ABSTRACT

This study sought to develop a 'Meaning of Parenting Scale for Mothers(MPS-M)' in order to measure how Korean mothers perceive the meaning of parenting. To this end, in Study 1, a preliminary scale was designed, based firstly on socio-cultural and evolutionary psychological perspectives and secondly on the responses from 118 mothers concerning meaning of parenting. This was followed up by the collection of 887 mothers' responses to the preliminary scale, which then underwent exploratory factor analysis for scale revision. In Study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on a collection of responses from 548 mothers using the revised scale. Concurrent validity was tested using a parenting stress scale, and reliability was then checked by conducting calculations for internal consistency. As a result, the MPS-M was finally developed, consisting of 25 items under six factors: 'Internal Maturity', 'Restoration of Naturality', 'Familial Union', 'Physical Burden', 'Affective Disorientation', and 'Comprehensive Loss'. Accordingly, the meaning of parenting was statistically confirmed as a hierarchical two-sided concept possessing six factors under positive and negative meaning categories.

\* 본 논문은 2014년도 동덕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sup>1)</sup> 동덕여자대학교 박사졸업

<sup>2)</sup> 동덕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Yeonsook Kim,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Education, Dongduk Women's University, Wolgok 2-dong, Seongbuk-gu, Seoul 136-714, Korea  
E-mail : kysook70@hanmail.net

© Copyright 2014, The Korean Society of Child Studies. All Rights Reserved.

**Keywords** : 양육의 의미(meaning of parenting), 부모 됨의 의미(meaning of parenthood), 자녀가치(value of child), 자연 모성(mother nature), 연속성의 개념(the continuum concept), 보살핌 본능(the tending instinct), 진화심리학(evolutionary psychology).

## I. 서론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 어머니가 인식하는 양육은 어떤 것일까. 매스컴에서는 연일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의 어려움과 함께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보도한다. 정부는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학계에서는 양육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다각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여러 연구에서 자주 거론되는 것처럼 양육은 전적으로 어려움이고 딜레마인가?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의 어려움이나 국가적 난제로 꼽히는 출산을 저하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기 양육기에 있는 우리 시대의 어머니들에게 양육이 주는 의미는 어떠한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의 어려움에 대한 이제까지의 연구로는 양육스트레스 연구가 대표적이다. 양육스트레스 연구를 통해 밝혀진 중요한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양육 경험을 부정적으로 느끼게 하고, 생활 전반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Abidin, 1992, 1995; Crnic & Greenberg, 1990). 국내에서 수행된 최근의 양육스트레스 관련 연구들도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양육 행동과 자녀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Kim & Moon, 2005; Lee, 2008; Lee & Lee, 2009; Lee & Lee, 2012; Lee, Park, & Choi, 2010; Lee & Seo, 2009; Moon & Min, 2012; Song & Kim,

2008; Yang & Kim, 2012). 그러나 양육을 주제로 하여 이처럼 활발하게 수행되어 온 양육스트레스 연구는 양육으로 인해 수반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부정적인 측면만을 조명하고 있어서 양육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밝혀주는 바가 없다.

기존의 양육스트레스 연구와는 달리,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부모 됨과 출산을 다룬 연구들은 자녀가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부모가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준다. 이 부류에 속하는 연구 영역으로는 인구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사람들이 왜 부모가 되고자 하는지를 탐구한 ‘부모 됨의 동기 연구’(Rabin, 1965; Rabin & Greene, 1968; Yoo & Chung, 2002; Yoo & Kim, 1997), 부모인 경우와 부모가 아닌 경우의 개인적·사회적 의미를 밝힌 ‘부모 됨의 의미 연구’(Cho, 2007; Yom & Cho, 2007; Yoo & Chung, 2002; Veevers, 1973), 출산 사실이나 추가 출산 의도를 기반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경제적·심리적·사회적 손익을 알아본 ‘자녀가치 연구’(Hoffman, 1972; Hoffman & Hoffman, 1973; Kim, Kim, & Park, 2007; Kim, Kim, & Park, 2012; Kwon & Kim, 2004; Kwon, Kim, & Park, 2005) 등이 있다.

Rabin(1965)으로부터 시작된 ‘부모 됨의 동기 연구’는 사람들이 부모가 되고자 하는 동기로 애정적 동기, 숙명적 동기, 자기도취적 동기, 도구적 동기 등이 있음을 밝혔는데, 이러한 동기들은 부모가 출산 및 양육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시사한다. Veevers(1973)로부터 시작된 ‘부모 됨의 의미 연구’는 부모 됨

에 내포된 사회적 의미로 도덕성, 책임감, 시민 의무의 완수와 같은 긍정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출산 현상에는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결론지었다. Hoffman(1972)으로부터 시작된 자녀가치 연구는 심각해진 인구과잉 문제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파악하기 위해 수행된 것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가치에는 양육비용·사회활동의 제약 등의 부정적 가치도 있지만, 사회적 인정·향후에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등의 긍정적 가치도 있음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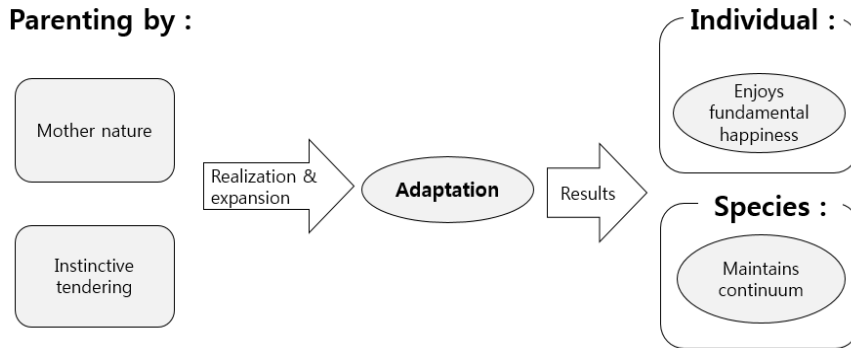
그러나 상기한 연구들은 본 연구자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자녀를 지속적으로 보살피고 지도하는 행위’로서의 양육 경험이 부모의 삶에 있어서 지니는 의미를 설명해 주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부모 됨의 동기 연구’는 출산의지나 자녀유무에 초점을 둔 연구도구의 내용구성으로 인하여 양육의 의미보다는 출산을 통한 사회적 기대와 개인적 욕구의 충족을 설명하는데서 그치고 있고, ‘부모 됨의 의미연구’는 출산 현상에 사회적 당위성과 규범, 개인이 선택하는 생활방식 등이 직결되어 있음을 제시하였을 뿐이다. 또한 ‘자녀가치 연구’는 자녀의 긍정적인 측면을 ‘수익’으로 그리고 부정적 측면을 ‘비용’으로 개념화하면서, 자녀의 가치를 경제적 논리 위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초기 양육기의 어머니들에게 양육 경험이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 지에 대해서는 밝혀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삶에 있어서 양육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고찰을 기반으로 양육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여 우리 사회에서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의 의미는 무엇일지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의 의미를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함에 있어 사회문화적 관점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은 생물학적인 존재로서의 인

간의 양육에 대한 고찰이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일 뿐 아니라 생물학적인 존재로서 양자의 이분화는 인식론적으로 또는 개념적으로만 가능할 뿐 존재론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Ridley, 2003; Seo, Hong, Lee, Lee, & Hwang 1995).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생물학과 사회·문화를 아우르는 통섭(consilience)적 접근으로 인간의 보편적 본성을 조명하는 진화심리학적 관점(Wilson, 1978)의 연구들은 양육의 생물학적 본질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양육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할 때 마땅히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진화심리학적 관점에 따르면, 인간이 사회화를 통해서 자녀 양육에 필요한 기술과 태도를 습득하고, 그것을 다시 자손에게 전수하며, 자녀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자손을 돌보고 애정을 쏟는 것 등은 모두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능력에 의한 것이다(Hrdy, 1999; Lerner, Castellino, Terry, Villarruel, & Mckinney, 1995; Liedloff, 1985; Taylor, 2002). 진화심리학적 관점에서 양육을 고찰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어머니 됨’의 원형을 ‘자연 모성(Mother Nature)’으로 설명한 Hrdy의 연구(1999, 2009)와, 양육의 생물학적 원형을 원시 종족의 생활상을 통해 제시한 Liedloff의 연구(1985), 그리고 보살핌을 인간의 본능에 의한 행위로 규명한 Taylor의 연구(1989)를 들 수 있다. 이들의 연구는 인류가 행하여 온 생물학적 양육의 면모와 그러한 양육이 지니는 생물학적 기능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Hrdy(1999, 2009)의 연구에서 언급되는 ‘자연 모성(Mother Nature)’이란 자녀의 생존을 위해 주어진 환경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어머니의 전략가적인 유능성을 뜻한다. 즉 어머니는 번식의 성공과 자녀의 생존을 위해 생계를 지속적으로 일구어 나가면서 환경과 협력하는 방향으



〈Figure 1〉 Concept of parenting from the perspective of evolutionary psychology

로 진화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곧 양육이며 그 기반은 생물학적 본능에 있다는 것이다. Liedloff(1985)는 아마존 지역의 인디언인 예콰나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연구한 원시적인 양육을 통해 현대사회가 잃어버린 양육의 원형을 ‘연속성의 개념(the continuum concept)’으로 제시하였다. Liedloff가 의미하는 연속성이란 주어진 환경에서 최적화된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모가 행하는 ‘부모와 자녀의 생물학적 본성’을 따르는 양육이다. 연속성의 개념을 통해 부각되는 Liedloff의 입장은 본능에 의한 양육이 실종됨으로써 현대 사회가 많은 병폐와 심리적 문제들을 안게 되었고, 결국 근원적인 행복이 상실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생물학적 본능에 의한 양육의 복원이 부모와 자녀가 근원적인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 핵심으로 논의된다. Taylor(2002)는 보살핌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점을 방대한 분석적 고찰을 통해 입증하면서, 인간은 양육을 통해 보살핌 본능이 충족될 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을 더 잘 보살피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양육을 투쟁이나 도피(fight or flight)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전환하여 타고난 본능으로서의 보살핌을 회복하는 것이 인간의 건강

과 복지를 증진하는 길이라는 것이 Taylor의 견해이다.

이러한 진화심리학적 관점을 요약·정리해보면 Figure 1과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즉 본능에 의한 양육을 통해 부모와 자녀는 최적의 적응을 이루어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근원적인 행복을 향유할 수 있고, 종의 차원에서는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출산과 양육에 관련된 우리나라의 실태와 인식, 사회문화적 관점의 출산과 양육에 관한 이론적·경험적 연구, 진화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생물학적 양육 등을 바탕으로 하여 지속적인 보살핌으로서의 자녀 양육이 부모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어머니용 양육의미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척도개발을 위한 연구 I과 척도의 타당화를 위한 연구 II로 구분하여 본 연구를 실행하였다.

## II. 연구방법

어머니용 양육의미척도 개발을 위한 본 연구는 2012년 9월 1일부터 2014년 7월 30일까지

Study I	Derivation of preliminary ite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iterature review and analysis on parenting: Reviewed research from socio-cultural perspectives and evolutionary psychology, and derived tentative categories of meaning of parenting.</li> <li>• Preliminary survey: Used open-ended questions to identify the meanings of parenting perceived by 118 mothers (27 to 52 years old) and applied the results in developing the preliminary items.</li> <li>• Derivation of 39 preliminary items.</li> </ul>
	Completion of the preliminary sca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irst test of content validity: Collected opinions from three professors in child psychology and education to improve the preliminary items.</li> <li>• Second test of content validity: The preliminary scale was examined by six mothers, three child care center directors and three teachers.</li> <li>• Completion of the Preliminary scale (seven tentative factors and 39 items)</li> </ul>
	Development of the scale by exploring facto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ubjects: 887 mothers of six to 36 months old children</li> <li>• Research tool: the Meaning of Parenting Scale for Mothers (preliminary version)</li> <li>• Data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each factor, and internal consistency analysis</li> </ul>
Study II	Validation of the scale through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ubjects: 548 mothers of 6 to 36 months old children</li> <li>• Research tool: the Meaning of Parenting Scale for Mothers (revised version)</li> <li>• Data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each factor, and internal consistency analysis</li> </ul>
the MPS-M(final version) developed and validated		

〈Figure 2〉 Process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Meaning of Parenting Scale for Mothers(MPS-M)

23개월 동안 문항개발을 위한 연구 I과, 척도의 타당화를 위한 연구 II의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절차는 다음의 Figure 2와 같다.

### 1. 연구대상

어머니용 양육의미척도의 기초문항 작성을 위한 사전현장연구 대상은 다양한 연령대의 자

녀를 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어머니 118명 (27~52세)으로 취업모가 45명, 비취업모가 73명이었다. 척도의 구성요인 탐색을 위한 1차 연구 대상은 영아 자녀를 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어머니 887명(23~49세, 평균 34세)이었고, 영아의 월령 범위는 6개월~36개월(평균 19개월)이었다. 척도의 타당화를 위한 2차 연구대상 역시 같은 월령대의 영아 자녀를 둔 어머니 548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of Study 1 and 2

Classification	Study 1 (N = 887)		Study 2 (N = 548)	
	Frequency	Remark	Frequency	Remark
Mother's age (years)	21~29	58( 6.5%)	42( 7.7%)	
	30~39	704(78.4%)	450(82.1%)	Mean
	40~49	80( 9%)	51( 9.3%)	34
	No response	45( 5.1%)	5( .9%)	
Employment status of mother	Employed	255(28.7%)	224(40.9%)	
	Not employed	623(71.3%)	324(59.1%)	
Child's age (months)	6~12	263(29.7%)	5( .9%)	
	13~18	242(27.3%)	55( 10%)	
	19~24	101(11.4%)	347(63.3%)	Mean
	25~30	125(14.1%)	120(21.9%)	19
	31~36	156(17.6%)	14( 2.6%)	18
	No response	-	7( 1.3%)	
Sex of child	Boy	422(47.6%)	272(49.6%)	
	Girl	456(51.4%)	275(50.2%)	
	No response	9( 1%)	1( .2%)	
Birth order of child	First	637(71.8%)	434(79.2%)	
	Second	214(24.1%)	96(17.5%)	
	Third	36( 4.1%)	18( 3.3%)	
Type of care	Day care	343(38.7%)	202(38.7%)	
	Home	544(61.3%)	346명(61.30%)	

명(21~48세, 평균 34세)이었고, 영아의 평균 월령은 18개월이었다. 1차와 2차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자녀양육 이전에 갖고 있던 ‘원래의 생각’과 양육을 경험한 후의 ‘실제 생각’을 분리하여 기술할 수 있도록 작성된 개방식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 2. 연구도구

1) 양육· 부모 됨· 자녀에 대한 개방식 질문지  
기초문항 작성을 위한 사전현장연구에서의 연구도구로 양육, 부모 됨, 자녀 등 세 가지에 대해

### 2) 어머니용 양육의미척도

연구 I에서 사용된 어머니용 양육의미척도 예비형의 잠정적 하위 요인과 문항 수는 각각 ‘자연적 의미’ 5개 문항, ‘성장적 의미’ 6개 문항, ‘애정적 의미’ 5개 문항, ‘관계적 의미’ 5개 문항,

‘부담적 의미’ 6개 문항, ‘소외적 의미’ 6개 문항, ‘상실적 의미’ 6개 문항으로 총 7요인 39개 문항이었으며(Table 4 참조), 응답 방식은 *Likert*형 5점 척도였다. 연구 II에서는 연구 I을 통해서 수정된 어머니용 양육의미척도를 사용하였다.

### 3) 한국판 부모양육 스트레스 검사(단축형)

양육의미척도의 공인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Abidin(1995)에 의해 개발된 양육스트레스 검사를 Chung, Kim, Lee와 Park(2008)이 번안하고 표준화한 한국판 부모양육스트레스 검사(단축형)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부모의 고통 요인, 까다로운 아동 요인, 부모-자녀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요인 등 세 가지 하위 요인을 포함하며 각각 12문항씩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 검사의 각 요인별 내적합치도는 부모고통 .84, 까다로운 아동 .82, 역기능적 상호작용 .83로 나타났다. 전체문항에 대한 내적합치도는 .89였다.

## 3. 자료 분석

SPSS 18.0과 AMOS 18.0을 이용하여 어머니용 양육의미척도에 대한 문항분석 및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I에서는 예비척도의 문항 분석을 위해 문항별 평균,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 문항-총점 간 및 문항-요인 간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예비척도의 요인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양육 의미의 하위요인이 어떻게 다양하게 추출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직교회전 방식을 이용한 주성분분석을 적용하여 문항의 요인과 요인부하량을 확인하였다. 연구 II에서는 연구 I

의 결과에 근거하여 도출한 본 연구에서의 요인 모델을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공인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문항내적일치도 지수인 *Conbach's α*를 산출하여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 III. 결과분석

### 1. 어머니용 양육의미척도 개발연구 - 연구 I

#### 1) 양육관련 문헌고찰 및 분석 결과

어머니용 양육의미척도를 위한 기초문항을 선정하기위해 양육이 부모에게 주는 긍정적인 의미를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부모 됨의 동기’, ‘부모 됨의 의미’, ‘자녀의 가치’에 관한 이론적·경험적 연구를 고찰하고, 이들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도구를 분석하였다. 또한 기존의 양육관련 연구들이 간과해온 진화심리학적 입장에서 양육에 관한 연구물을 고찰하여 생물학적 본능을 따르는 양육의 긍정적인 의미들을 도출하였다. 양육이 부모에게 주는 부정적인 의미를 문항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최근 매스컴이나 정책보고에서 자주 거론된 양육의 어려움에 관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또한 영아관련 양육스트레스 연구와 자녀가치 연구에서 언급된 난점들도 문항 고안에 고려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 2) 사전현장 연구결과

‘부모 됨’, ‘자녀’, ‘양육’ 3가지 개방식 설문에 대한 응답결과를 Table 3에 요약·제시하였다. 대체로 ‘~(는) 원래 ~(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내용으로, ‘~(는) 실제 ~(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내용으로 응답한 경향이였다.

<Table 2> Meanings of parenting: Derived from related studies on parenting

Related studies topics (Researchers)	Meanings of parenting derived				Category
	Social recognition/ accepting social expectations	Family bonding/ relationship building	Realizing altruism	Manifestation, development, and adaptation of biological competencies	
Motivation to Parenthood (Rabin, Greene, 1968)	Destiny for social perpetuity	Enhancing family relationship	Fulfilling altruistic needs	Proving sexual abilities	<b>Positive Meaning</b>
Motivation to Parenthood (K. S. Yoo, & H. S. Chung, 2002)	Inheriting tradition and norms	Making stronger connection among blood relations, and unity between husband and wife	Fulfilling altruistic affective needs	-	
Meanings of Parenthood (K. S. Yoo & H. S. Chung, 2002; Veevers, 1973)	Observing moral rules and responsibilities as citizen	Amicable relationship between husband and wife	Altruistic needs	Accepting sexual identity and proving sexual abilities	
Value of Children (Y. E. Kwon, E. C. Kim, & Y. S. Park, 2005)	Familial perpetuity	Happiness and harmony in the family	Affective satisfaction	-	
Value of Children (M. S. Kim, E. C. Kim, & Y. S. Park, 2012)	Contributing to society & family legacies	Maintaining and enhancing relationship with others	Psychological pleasure	-	
Mother Nature (Hrdy, 1999)	-	Allomother, alloparent	Strategy for the survival of children	Adaptable development, childcaring abilities	
Continuum(Liedloff, 1985)	-	Continuum with the community for co-existence	Happy life for parent and child	Optimal adaptation (the continuum concept)	
Tendering(Talyor, 2002)	-	Forming better parent-child relationships	Tendering to achieve secure survival of children	Stress coping abilities, disease prevention and immunity, effect of tendering	
Research Topic (Researcher)	Meanings of parenting derived			Category	
	Burden	Isolation /withdrawal	Social Loss		
Value of Children (Y. E. Kwon, E. C. Kim, & Y. S. Park, 2005)	Financial burden	Conflict with children, neglecting relationship between husband and wife, anxiety	Limitations on personal life, limitations on social life	<b>Negative Meaning</b>	
Value of Children (M. S. Kim, E. C. Kim, & Y. S. Park, 2012)	Burden on living expenses, childcare and education	Conflict with children	Limitations on personal life, Limitations on worklife		
Parenting Stress (I. H. Park, J. S. Kim, & S. Y. Kang. 2007 )	Financial pressure, burden on responsibilities of childcare	Affective needs	Limitations on personal life		
Difficulties of Parenting(S. M. Lee, S. Y. Lee. 2012)	Financial burden, child care burden and responsibilities	Time limitations, inexperienced coping tactics, conflict between husband and wife	Limitations on working life		
Difficulties of Parenting for Inexperienced Mother (D. K. Lee, & J. M. Hwang. 2008 )	Burdensome as caretaker and on household work	Physical and emotional burnout, sense of inadequacy and helplessness	Limitations on working life		



<Table 3> Response tendencies of mothers

(N = 118)

Items	To me, originally...	To me, actually...
Parenthood (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uidance, helper, a sample of real life</li> <li>• Law of nature</li> <li>• Self-reflection, waiting</li> <li>• To care with love</li> <li>• A result of love</li> <li>• To discover a part of me unknown to me before</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hat makes me realize my inadequacies</li> <li>• What makes me break desirable rules</li> <li>• Feeling hard to acknowledge the reality</li> <li>• Losing myself</li> <li>• A disturbance</li> <li>• Feeling difficult to control emotions</li> <li>• Burden, warfare, sacrifice</li> </ul>
Tendency	Law of nature, Achieving ideals	Cause for sense of inadequacy/Loss
Child (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ho I must take care of</li> <li>• The reason I live</li> <li>• A teacher, who helps me grow</li> <li>• A way to a happy family</li> <li>• Happiness itself</li> <li>• Who adds intimacy to the husband and wife</li> <li>• Who makes me an able person</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n arduous task</li> <li>• Arousing guilt</li> <li>• A financial burden</li> <li>• Who decreases my desires</li> <li>• Who drives me crazy</li> </ul>
Tendency	Motivation for growth/Happiness	Burden and obstacle
Parenting (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o teach proper values</li> <li>• Leading in the right direction</li> <li>• To make a basis for life</li> <li>• Happiness</li> <li>• Caretaking</li> <li>• Providing life's necessities</li> <li>• Financial support</li> <li>• What all parents must do</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abor</li> <li>• Giving up desires</li> <li>• What makes me difficult to control my anger</li> <li>• Losing myself</li> <li>• Cause for conflict between husband and wife</li> <li>• Financial burden</li> <li>• Suffering</li> <li>• What makes me impossible to take care of myself</li> <li>• A limitation to life</li> </ul>
Tendency	Caring/Teaching, Being responsible	Labor, Loss, Conflict, Burden

3) 기초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 검증  
 어머니용 양육의미척도 기초문항 39개에 대해 1차로 아동학과 교수 3인으로부터 내용 타당도 검증과 개선의견을 받았다. 또한 어린이집에 영아를 맡기고 있는 어머니 3인, 문화센터 프로그램에 영아와 함께 참가하고 있는 어머니 3인, 보육시설장 3인, 교사 3인, 총 12인에게 문항검토를 의뢰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완성된 어머니용 양육의미척도 예비형은 Table 4와 같이 7개의 잠재적 요인 하에 39개의 문항으

로 구성되었다.

4) 어머니용 양육의미척도의 구성요인 탐색

(1) 문항분석

문항 분석의 기초 작업으로, 어머니용 양육의미척도(예비형)의 각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를 검토하였다. 문항별 응답 평균값의 경우 최소값이 1.92와 최대값이 4.38이었으며, 표준편차는 최소값이 .62였고 최대값이 1.19였다. 분석 결과 왜도는 절대값 ±1.05 미만, 첨도는

절대값  $\pm 1.45$  미만으로  $\pm 2.0$ 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Tak, 1996) 정규성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Table 5 참조).

## (2) 문항-총점 간 상관 분석

긍정적 양육의미 문항-긍정적 양육의미 총점 간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최고 .69부터 최저 .44까지의 분포를 보였다. 또한 부정적 양육의미 문항-부정적 양육의미 총점 간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최고 .73부터 최저 .30까지의 분포를 보였다. 하위요인별-총점 간 Pearson의 상관계수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 (3)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양육의미의 구성요인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KMO의 표준 적합도(Kaiser-Meyer-Olkin)와 Bartlett 구형성 검증치(Tests of Sphericity)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KMO 값은 .89였고, Bartlett 구형성 검증치는 근사 카이제곱 값이 10129( $df = 300$ )이며 유의도도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로 판단되어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요인수에 대한 추정치를 얻기 위해 요인수를 제한하지 않고 베리맥스 직교회전에 의한 주성분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치(eigenvalue) 1.0을 초과하는 요인은 6개로 탐색되었으며, 이들 6개 요인의 누적 변량 비율은 65.92%를 나타냈다. 주성분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요인에 묶이지 않는 문항(12번, 27번), 그리고 두 요인에 비슷한 부하량을 보이는 문항(5번, 6번, 8번, 13번, 14번, 15번, 21번, 24번, 28번, 29번, 34번, 39번)을 제거하였다. 또한 5~6개 요인구조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난 스크리 도표의 결과에 따라 5개 요인 및 6개 요인으로 지정했을 경우의 설명량을 살

펴본 결과, 5개 요인에서는 61.63%로, 6개 요인에서는 65.92%로 나타나 6개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와 같은 어머니용 양육의미척도(예비형)의 회전된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 채택된 문항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양육의미의 구성요인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다.

제 1 요인은 잠정적 요인에서 '성장적 의미' 문항 4개와 '애정적 의미' 문항 1개(문항 4)가 더하여져 형성된 요인으로 총 변량의 26.6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요인에는 양육을 '알지 못했던 나를 발견하는 과정', '부모인 나를 교육하는 것',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해주는 것', '새로운 능력을 갖게 하는 것', '사람을 소중하게 돌보는 법을 알게 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이를 '내적 성장' 요인으로 명명하고, '돌봄 능력의 확장'과 '내적 성장의 의미'를 나타내는 요인으로 정의하였다.

제 2 요인은 잠정적 요인의 '관계적 의미' 문항 5개 중 4개가 채택되어 형성된 요인으로 총 변량의 17.0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요인에는 양육을 '결혼 생활의 활력소', '가족의 화목을 더해주는 것', '부부 간의 친밀함을 강화해 주는 것', '가족의 결속을 돈독하게 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이 요인을 '가족적 결속' 요인으로 명명하고, '가족관계를 질적으로 강화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요인으로 정의하였다.

제 3 요인은 잠정적 요인의 '자연적 의미' 문항 5개 중 4개가 채택되어 형성된 요인으로 총 변량의 7.2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요인에는 양육을 '생물학적으로 자연스러운 것', '인생의 통과이레', '자연의 섭리', '인간의 본성을 찾도록 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 포함되었다.

<Table 4> Preliminary Items of the Meaning of Parenting Scale for Mothers (MPS-M)

Tentative factors	Question: To me, parenting (is)...
Naturality	1. Biologically natural.
	2. A rite of passage in life.
	3. A provision of nature.
	4. A discovery of human nature.
	5. My reason of existence.
Growth	6. The process of becoming adults.
	7. A process of finding out something about myself unknown to me before.
	8. A way to make me look after my own health, as a parent.
	9. To educate me, the parent.
	10. Makes me know what life's priorities should be.
	11. Makes me have new abilities.
Affection	12. Gets rid of loneliness.
	13. Quenches the need to love.
	14. To exchange love.
	15. To experience happiness.
Relationship	16. To learn to know how to take care of someone you love.
	17. Invigorating to marital life.
	18. Adds happiness to the family.
	19. Strengthens intimacy between husband and wife.
	20. To make the family bond stronger.
Burden	21. To expand the scope and opportunity for social relationships.
	22. Financially burdensome.
	23. Arduous work that makes me weary.
	24. Comes with relatively little compensation.
	25. More duties.
	26. Time consuming.
	27. Makes me compete to get ahead of others.
Isolation	28. Doesn't allow me to look after myself.
	29. To become socially isolated.
	30. Makes me realize my inadequacies.
	31. Creates anxiety.
	32. Makes it difficult to hold back anger.
	33. Makes me a distracted person.
Loss	34. Makes you lose the desire for basic instincts (sleep, eating, sex).
	35. Makes me lose myself.
	36. Makes it difficult to have a job.
	37. Deprives couples of time to themselves.
	38. Makes me lose beauty.
	39. Makes it difficult to realize my dreams.

〈Table 5〉 Analyses of each item of MPS-M(preliminary edition): Standard deviation, skewness, kurtosis, and correlations  
( $N = 887$ )

Tentative factors & items	Mean	SD	Skewness	Kurtosis	Item-total correlations	Item-factor correlations
Naturality 1	3.99	.85	-.63	-.12	.63***	.77***
Naturality 2	4.05	.80	-.67	.15	.64***	.82***
Naturality 3	4.08	.80	-.65	.03	.65***	.83***
Naturality 4	3.95	.83	-.44	-.36	.65***	.79***
Naturality 5	3.83	.96	-.47	-.48	.54***	.65***
Growth 6	4.19	.80	-.99	1.26	.58***	.72***
Growth 7	4.12	.76	-.49	-.33	.62***	.77***
Growth 8	3.57	1.02	-.37	-.43	.44***	.68***
Growth 9	4.22	.73	-.69	.22	.59***	.78***
Growth 10	4.14	.77	-.54	-.31	.68***	.79***
Growth 11	4.08	.79	-.49	-.35	.63***	.76***
Affection 12	3.44	1.06	-.26	-.62	.44***	.77***
Affection 13	3.82	.95	-.43	-.33	.54***	.83***
Affection 14	4.36	.71	-.89	.35	.59***	.76***
Affection 15	4.37	.62	-.53	-.23	.62***	.73***
Affection 16	4.38	.64	-.57	-.45	.61***	.70***
Relationship 17	3.92	.83	-.31	-.59	.68***	.83***
Relationship 18	4.33	.67	-.49	-.75	.67***	.78***
Relationship 19	3.90	.88	-.36	-.43	.64***	.84***
Relationship 20	4.27	.71	-.54	-.48	.69***	.79***
Relationship 21	3.57	.98	-.26	-.48	.44***	.72***
Burden 22	2.45	.88	.45	.31	.50***	.68***
Burden 23	3.01	.95	.09	-.46	.58***	.77***
Burden 24	3.45	1.11	-.36	-.65	.42***	.67***
Burden 25	2.18	.95	.90	.76	.60***	.73***
Burden 26	1.92	.85	1.05	1.45	.57***	.67***
Burden 27	3.45	1.03	-.30	-.46	.30***	.55***
Isolation 28	2.96	1.05	.16	-.59	.67***	.76***
Isolation 29	3.57	1.01	-.35	-.48	.58***	.75***
Isolation 30	2.91	1.04	.17	-.61	.62***	.71***
Isolation 31	3.74	1.02	-.55	-.30	.65***	.76***
Isolation 32	3.65	1.01	-.33	-.53	.65***	.75***
Isolation 33	3.31	1.08	-.06	-.82	.70***	.77***
Loss 34	3.26	1.06	-.09	-.74	.61***	.71***
Loss 35	3.38	1.05	-.10	-.82	.70***	.82***
Loss 36	2.81	1.19	.33	-.86	.69***	.78***
Loss 37	3.01	1.07	.05	-.68	.70***	.80***
Loss 38	3.23	1.08	-.01	-.86	.70***	.80***
Loss 39	3.21	1.04	.02	-.64	.73***	.81***

\*\*\*  $p < .001$ .

〈Table 6〉 Results of explanatory factor analysis on MPS-M(preliminary) (N = 887)

Question: To me, parenting (is.)...	Factor					
	1	2	3	4	5	6
Growth 2. To educate me, the parent.	.783	.050	-.046	-.037	.095	-.034
Growth 1. A process of finding out something about myself unknown to me before.	.751	.113	-.052	-.036	.124	.113
Growth 4. To give me new abilities.	.746	.271	.010	.019	.160	-.012
Growth 3. To know what life's priorities should be.	.738	.168	-.037	-.040	.170	-.037
Affection 4. To learn to know how to take care of someone you love.	.587	.367	-.026	-.064	.082	.065
Relationship 3. Strengthens intimacy between husband and wife.	.154	.817	-.254	-.036	.141	-.053
Relationship 4. To make the family bond stronger.	.235	.812	-.070	-.113	.137	.045
Relationship 1. Invigorating to marital life.	.213	.775	-.067	-.205	.152	-.001
Relationship 2. Adds happiness to the family.	.261	.710	-.165	-.076	.141	-.181
Naturality 3. A provision of nature.	-.061	-.177	.773	.204	-.072	.125
Naturality 2. A rite of passage in life.	.023	-.109	.745	.123	-.062	.244
Naturality 1. Biologically natural.	-.083	-.108	.741	.145	.010	.188
Naturality 4. A discovery of human nature.	-.018	-.106	.718	.324	-.046	.146
Loss 4. Makes it difficult to realize my dreams.	-.124	-.095	.224	.787	-.061	.060
Loss 2. Deprives couples of time to themselves.	-.029	.047	.349	.718	-.035	.143
Loss 3. Makes me lose beauty.	-.077	-.195	.152	.701	-.070	.174
Loss 1. Makes it difficult to have a job.	.142	-.215	.067	.575	-.082	.378
Isolation 3. Makes it difficult to hold back anger.	.190	.139	-.052	-.022	.875	.001
Isolation 2. Creates anxiety.	.167	.137	-.011	.006	.854	.039
Isolation 4. Makes me a distracted person.	.145	.197	-.098	-.193	.707	-.061
Isolation 1. Makes me realize my inadequacies.	.506	.070	.002	-.037	.541	-.038
Burden 3. Time consuming.	.031	.029	.222	.025	.012	.821
Burden 4. More duties.	.058	-.055	.173	.106	-.030	.799
Burden 1. Financially burdensome.	-.026	-.022	.121	.288	.021	.592
Burden 2. Arduous work that makes me weary.	-.045	-.082	.224	.399	-.042	.516
Eigenvalues	6.67	4.26	1.81	1.36	1.30	1.07
Variance	26.67	17.04	7.26	5.46	5.21	4.28
Commutated explanation	26.67	43.71	50.97	56.42	61.64	65.92

따라서 이 요인을 ‘자연성 회복’ 요인으로 명명하고, ‘인간이 갖고 있는 자연적 본성을 회복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요인으로 정의하였다.

제 4 요인은 잠정적 요인의 ‘상실적 의미’ 문항 6개 중 4개가 채택되어 형성된 요인으로 총 변량의 5.4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요인에는 양육을 ‘직업 찾기와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 ‘부부 둘만의 시간을 빼앗는 것’, ‘나의 아름다움을 잃게 하는 것’, ‘내 꿈의 실현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이 요인을 ‘복합적 상실’ 요인으로 명명하고, ‘누리고 바라던 것을 잃게 만드는 의미’를 나타내는 요인으로 정의하였다.

제 5 요인은 잠정적 요인의 ‘소외적 의미’ 문항 6개 중 4개(3, 4, 5, 6번)가 채택되어 형성된 요인으로 총 변량의 5.2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요인에는 양육을 ‘화를 참지 못하도록 하는 것’, ‘불안감을 주는 것’, ‘나를 정신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나의 부족함을 실감하게 하는 것’ 등으로 보는 관점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이 요인을 ‘정서적 혼란’ 요인으로 명명하고, ‘정서적 동요와 불안을 초래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요인으로 정의하였다.

제 6 요인은 잠정적 요인의 ‘부담적 의미’ 문항 5개 중 4개가 채택되어 형성된 요인으로 총 변량의 4.28%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요인에는 양육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일’, ‘의무가 늘어나는 것’, ‘경제적 부담’, ‘나를 지치게 하는 노동’으로 보는 관점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이 요인을 ‘물리적 부담’으로 명명하고, ‘경제적·시간적·체력적 부담의 의미’를 나타내는 요인으로 정의하였다.

#### (4) 내적합치도 검증 결과: 신뢰도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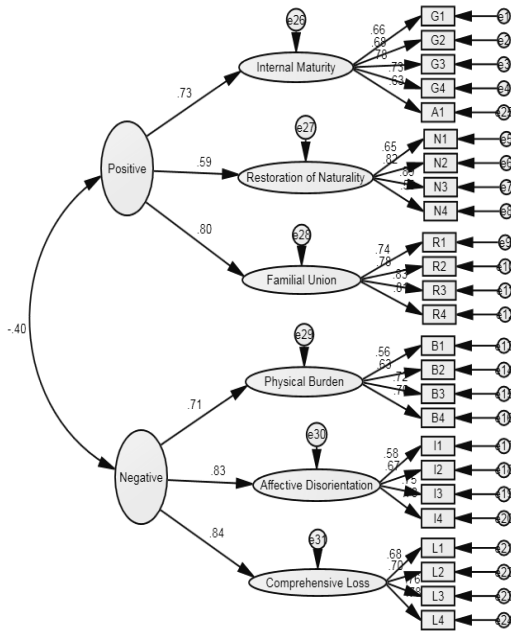
연구 I에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로 얻은 6요인 25문항에 대한 887명의 자료로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를 산출한 결과, 긍정적인 의미 전체 문항에서는 .89, 부정적 의미 전체 문항에서는 .88로 나타났다. 요인별로는 자연성 회복 .85, 내적 성장 .82, 가족적 결속 .86, 물리적 부담 .76, 정서적 혼란 .78, 복합적 상실 .83로 전반적으로 만족할만한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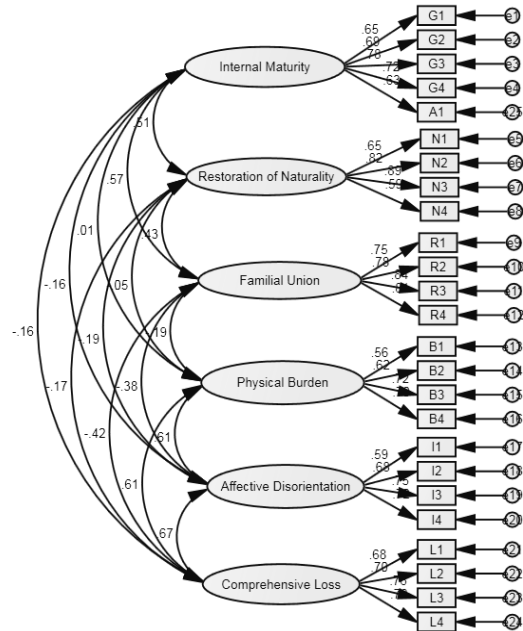
## 2. 어머니용 양육의미척도의 타당화 연구연구 II

### 1)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구성개념 타당도 검증

연구 II에서는 양육의 의미에 대한 연구모델과 경쟁모델의 상대적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성개념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연구모델은 양육의 의미를 설명하는 6개의 요인이 2개의 상위 요인인 긍정적 의미요인과 부정적 의미요인으로 묶일 수 있다고 추정하는 위계적 2차원 요인 모델(hierarchical factor model)이다. 경쟁모델은 양육의 의미를 구성하는 25개 문항이 6개의 다요인 구조를 가진 것으로 상정되었다. 연구모델과 경쟁모델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카이제곱( $\chi^2$ ), 일반적합지수(GFI), 비교적합지수(CFI), 비표준적합지수(TLI), 근사원소평균자승오차(RMSEA) 등을 적합도 지수로 사용하였다. 1단계에서 분석한 2차원-6요인 구조의 연구모델은 Figure 3과 같고, 분석결과는  $\chi^2 = 814.10(df = 268, N = 548, p < .001)$ ,  $GFI = .891$ ,  $TLI = .894$ ,  $CFI = .906$ ,  $RMSEA = .061$  등으로 GFI와 TLI가 .9기준과 근소한 차이가 있으나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2단계에서 분석한 6요인의 경쟁모델은 Figure 4와 같고, 분석결과는  $\chi^2 = 758.50(df = 260, N = 548, p < .001)$ ,  $GFI = .898$ ,  $TLI = .900$ ,  $CFI = .914$ ,  $RMSEA = .059$ 로 GFI가 .9 기준과 근소한 차이가 있으나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Figure 3〉 Analysis of research model



〈Figure 4〉 Analysis of competition model

〈Table 7〉 Fitness of each model for factor structure of meaning of parenting (N = 548)

Model	$\chi^2$	df	GFI	TLI	CFI	RMSEA
Research model	814.10	268	.891	.894	.906	.061
Competition model	758.50	260	.898	.900	.914	.059
Criteria for good-fitting model			> 0.9	> 0.9	> 0.9	.05 ~ .08

양육의 의미가 갖고 있는 요인구조의 최종모델을 선정하기 위해 연구모델과 경쟁모델의  $\chi^2$  값을 비교한 결과는 유의미했지만( $\Delta\chi^2 = 55.6$ ,  $N = 548$ ,  $p < .001$ ), 모델별 적합도 지수들의 차이는 .008 이하( $\Delta GFI = .007$ ,  $\Delta TLI = .006$ ,  $\Delta CFI = .008$ ,  $\Delta RMSEA = .002$ )로 미미하였다. 통상적으로 모델의 적합도 차이가 .01이하라면 모델 적합도의 변화가 거의 없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Kim, Kim, Kim, & Shin, 2008), 통계적으로는 연구모델과 경쟁모델 중 어느 하나를 더 우월한 것으로 채택하거나 기각시킬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의 의미가 6개의

요인에 의해서도 설명될 수 있으며, 긍정적 의미요인과 부정적 의미요인으로 구분되는 위계적 요인구조에 의해서도 잘 설명되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델의 간명성과, 양육의 의미에 대한 이론고찰에 근거하여 최종적으로 양육의 의미를 긍정적·부정적 상위 개념으로 보여주는 위계적 2차원의 연구모델을 채택하였다.

## 2) 공인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서 개발한 양육의미척도의 공인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양육의미척도의 하위 요

〈Table 8〉 Correlations between MPS-M and parenting stress scale

(N = 548)

Parenting stress Meaning of parenting	Parent's suffering	Difficult child	Disfunctional interaction	Total of parenting stress
Restoration of naturality	-.19**	-.19**	-.22**	-.27**
Positive Internal growth	-.10*	-.26**	-.13**	-.22**
Familial union	-.37**	-.25**	-.24**	-.36**
Negative Physical burden	.46**	.09*	.19**	.33**
Affective disorientation	.54**	.34**	.44**	.55**
Comprehensive loss	.60**	.23**	.31**	.48**
Total of positive meaning	-.27**	-.29**	-.24**	-.35**
Total of negative meaning	.65**	.28**	.39**	.56**

\* $p < .05$ . \*\* $p < .01$ .

인과 Chung, Kim, Lee와 Park(2008)이 표준화한 한국판 부모양육 스트레스 검사(단축형)의 총점 및 하위요인 간의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긍정적 양육의미와 양육 스트레스는 유의한 부적상관( $r = -.35, p < .01$ )을, 부정적 양육의미와 양육스트레스는 유의한 정적상관( $r = .56, p < .01$ )을 나타내었다. 이는 양육의미에 대한 긍정적 의미 인식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와 부적 상관이 있으며, 부정적 의미 인식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와 정적 상관이 있음을 의미한다.

### 3) 신뢰도 검증 결과

연구 II에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로 얻은 6요인 25문항에 대한 548명의 자료에서 긍정적 의미 전체 문항의 내적합치도는 .88 이었고, 요인별로는 자연성 회복에서 .82, 내적 성숙에서 .82, 가족적 결속에서 .87로 나타났다. 부정적 의미 전체 문항에서의 내적합치도는 .87 이었고, 요인별로는 물리적 부담에서 .74, 정서적 혼란에서 .77, 복합적 상실에서 .82로 나타났

다. 따라서 양육의미척도의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가 인식하는 양육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어머니용 양육의미척도’를 개발하고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는 것으로, 연구 I과 연구 II의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논의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I에서는 6~36개월 영아의 어머니 887명에게 양육의 의미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예비형 척도를 실시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여 ‘어머니용 양육의미척도’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척도는 6개의 양육의미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Likert형 5점 척도로 ‘내적 성장’·‘가족적 결속’·‘자연성 회복’ 등 3개 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에 대한 긍정적 의미 인식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복합적 상실’·‘정서적



혼란'·'물리적 부담' 등 3개 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에 대한 부정적 의미 인식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도구이다.

연구 II에서는 '양육의 의미'가 단일차원적인 요인구조의 개념인지 또는 긍정성과 부정성을 모두 지닌 다차원 구조의 개념인지를 검증하는데 초점을 두고, 6~36개월 영아의 어머니 548명을 대상으로 연구 I에서 개발된 척도를 통해 수집한 자료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상관분석을 적용하여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고, 내적합치도 분석을 통해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양육의 의미'에 대해 단일차원의 6요인 25문항을 상정하는 경쟁모델과, 6요인 25문항이 상위의 긍정적·부정적 요인 하에 분리 배치되는 구조를 상정하는 연구모델이 모두 수용할만한 적합도 지수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연구모델과 경쟁모델은 모두 수용할 수 있으나, 모델의 간명성과 이론 고찰로부터 밝혀진 양육의 긍정적·부정적 양면성을 고려하여 위계적 2차원의 연구모델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증된 양육의 의미에 대한 2차원적 위계구조는 자녀가치 연구에서 자녀의 가치를 이익과 손실로 범주화하여 긍정적 자녀가치 및 부정적 자녀가치로 개념화한 것과 유사하다(Kim, Kim, & Park, 2012; Kwon, Kim, & Park, 2005). 그러나 본 연구의 차별성은 양육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양면적 성격의 역할과 기회임을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입증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양육을 논할 때,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관점으로만 설명하거나 기술하는 것은 편향된 시각이며, 양육을 다면적이고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함에 있어서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즉 양육의 효율성과 양육의 의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양육

을 균형적인 안목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양육의 양면성을 충분히 드러내고 공유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과 경험들은 긍정적인 감정과 경험들보다 더 급박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들을 덮어 버릴 수 있다고 강조하는 긍정심리학에서의 견해(Seligman, 2002, 2004; 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0)를 주목해본다면 최근 우리 사회에서 좀처럼 조명되지 않는 양육의 긍정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한 의식 전환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한 대안으로 본 연구에서 밝혀진 '자연성 회복', '내적 성장', '가족적 결속' 등의 긍정적 양육의미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양육의 긍정적 의미에는 부모로서 경험하는 충족감의 원천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은 양육을 애로(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12)나 경제적 부담으로 조명하는 최근의 기조와는 상반되는 것으로 '양육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양육의 부정적 의미에는 부모로서 경험하는 불편과 갈등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는 부모가 양육을 통한 내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필연적으로 치러야 하는 대가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양육의 긍정적·부정적인 측면을 균형적 시각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특히 그러한 이해에는 '생존과 번식'을 추구하는 생물학적 본성(Buss, 2004; Dawkins, 2006; Hrdy, 2009; Seo, 2014; Taylor, 2002; Wilson, 1978)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작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양육은 개인의 행복에 상치되기보다 맞닿아 있음을 재인식하는 부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몇 가지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 변인으로 자녀의 수와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의미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 앞서 실시한 사전현장연구에서는 여러 연령대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로부터 양육의 의미를 알아봄으로써 기초문향을 고안하였다. 이어서 실시한 본 연구에서의 설문에서도 첫째 자녀만을 둔 어머니 뿐 아니라 둘째 또는 셋째 자녀를 둔 어머니를 포함하였으나, 연구자의 연구 관심이 양육 초기에 있는 영아 어머니들의 인식에 있었으므로 연구 I과 연구 II에서 첫째만을 둔 어머니가 각각 71.8%, 72.2%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일반화하고 양육의미의 구성요인을 논할 때는 본 연구가 주로 초기 양육기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의 의미를 분석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어머니의 양육의미 인식도 살펴보고 자녀수에 따른 양육의미의 인식의 차이를 밝히고 구성요인을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영아 어머니 외에도 다양한 발달단계에 있는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의미를 조사하여 자녀의 연령에 따라 양육의 의미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며, 같은 요인구조를 나타내는 지를 확인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어머니 변인으로 결혼 상태, 취업 유무, 양육형태 및 양육공유여부 등에 따른 양육의미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현재 부부 10쌍 당 한 쌍이 이혼하는 추세이고(Statistics Korea, 2013a), 미혼모의 경우에는 그 수나 소재지가 쉽게 파악되지 않아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는 없으나 한 부모 가족이 전체가족의 10%를 차지한다는 분석(Statistics Korea, 2013b)이 있다. 이를 고려하면 본 연구 대상에도 한 부모가 어느 정도는 포함되었다고 추정되나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 여부를 감안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양육의 의미에 대한 한부모의 생각을 알아보고 그들이 인식하는 양육의 의미 정도와 유형에 따라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취업과 양육공유 여부 및 공유 형태도 양육에 대한 의미 인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연구에서는 취업과 정적인 관련이 있다는 연구(Bek, 2007; Park, 2004), 비 취업과 정적인 관련이 있다는 연구(Kim, 2010; Kwon, 2012; Kwon & Na, 2010; Lim & Park, 2010; Sohn, 2012), 그리고 취업여부와 무관하다는 연구(Kim, 2001; Kim, Doh, Kim, & Rhee, 2010) 등으로 다양하여 연구 결과들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취업 유무에 따른 양육의미의 인식 및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와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도 이들 변인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필요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셋째, 연구 I에서 양육의미의 잠정적 요인으로 전제했던 ‘애정적 의미’가 구성요인에서 제거된 것이 합당했는지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자가 ‘애정적 의미’ 요인을 설정했던 이유는 부모 됨 연구(Rabin & Greene, 1968; Yoo & Cho, 2002)에서 출산의 동기 중 하나로 ‘이타적 욕구’가 포함되었던 점, 그리고 자녀가치 연구(Kwon & Kim, 2004)에서 자녀의 긍정적 가치로 ‘부모와 자녀간의 특별한 사랑’이 가장 높게 인식되었던 점 때문이었다. 그러나 분석결과 ‘애정적 의미’는 하나의 요인으로 구분되지 않았고, 5개의 관련 문항 중 1개인 ‘양육은 사

람을 소중하게 돌보는 법을 알게 하는 것이다' 만 '내적 성숙' 요인에 적재되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충족하는 것이다', '감격적인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다', '행복감을 경험하게 한다' 등의 3개 문항은 '내적 성숙' 또는 '가족적 결속' 요인에 중복 적재되어 삭제되었다. 또한 '외로움을 없애는 것이다'의 문항은 요인에 묶이지 않아서 삭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양육이 지닌 본질적인 특성이 그대로 반영된 것일 수 있으나, 본 연구가 영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애정'과 같은 낭만적이고 즐거운 특성의 양육의미보다는 '물리적 부담'이나 '상실감' 또는 '내적성숙'이나 '가족적 결속'이 더 강하게 인식되어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현재 세대 특유의 현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애정적 의미' 요인에 대해서는 세대 간 연구나 비교 문화 연구와 같은 한층 더 확대된, 다른 각도의 연구를 통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

본 연구는 양육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널리 퍼져있는 한국 사회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양육에 직접 임하고 있는 젊은 어머니들이 갖고 있는 양육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양육과 관련된 문제나 어려움에만 집착하기보다 인간이 지닌 생물학적 양육능력을 부모 스스로 발견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근거를 진화심리학으로부터 제시하였고, 양육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양육의미척도는 양육의 의미에 대한 부모의 인식이 부모 자신의 다른 심리·사회적 특성이나 부모-자녀 관계, 그리고 자녀의 발달과 어떻게 관련되고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 다양한 연구에 적용됨으로

써 삶에 있어서의 양육의 의미를 바르게 인식하도록 돕고 양육에 대한 편향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 407-412.
- Abidin, R. R. (1995). *Parenting Stress Index*.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Bek, Y. S. (2007). The effects of parenting stress and guilt of on parenting attitudes of mot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Buss, D. M. (2004). *Evolutionary psychology: The new science of the mind* (2nd ed.). Boston: Allyn & Bacon. Kwon, S. J., Kim, K. H., & Lee, H. P. cotranslation (2005).
- Cho, S. Y. (2007). Relationship of university students' definition of parenthood, empathy, and self-esteem with their motivation of parenthood.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8*(3), 219-233.
- Chung, K. M., Kim, H. J., Lee, K. S., & Park, J. A. (2008). Standardization study for the Korean Version of Parenting Stress Index (K-PSI).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7*(3), 689-707.
- Crnic,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Dawkins, R. (2006). *The selfish gene*.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Hong, Y. N., & Lee, S. I. cotranslation (2010). Eulyoo Publishing, Co.
- Hoffman, L. W. A. (1972). *The satisfactions and cost of children: Theories, concepts, methods*. Honolulu, Hawaii; East-west population Institute.
- Hoffman, L. W., & Hoffman, M. L. (1973). *The values of children to parents*. New York, NY: Basic Books.
- Hrdy, S. B. (1999). *Mother nature: A history of mothers, infants, and natural selection*. New York, NY: Pantheon Books. Hwang, H. S. translation (2010).
- Hrdy, S. B. (2009). *Mothers and others: The evolutionary origins of mutual understanding*. Cambridge, MA: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Kim, J. H., Kim, M. G., Kim, E. J., & Shin, U. J. (2008). Developing a problematic online game use scale: Identifying underlying factors and testing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Studies on Korean Youth*, 19(1), 385-415.
- Kim, H. R. (2010). The effects of a mother's characteristics and self-awareness upon parenting stress. *Studies on Korean Youth*, 1, 263-274.
- Kim, H. S. (2001).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socioemotional investment in the child of mothers with infa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o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 Kim, K. W., Doh, H. S., Kim, S. W., & Rhee, S. H.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employment, maternal job characteristics, spousal support, and parenting stres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1(5), 101-113.
- Kwon, M. K. (2012). Parenting stress and related factor of employed and non-employed mothers with infants.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7(2), 19-41.
- Kim, M. S., Kim, U. C., & Park, Y. S. (2007). Value of children among mothers of infants: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focusing on child care and reason for having additional children.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96-497.
- Kim, M. S., & Moon, H. J. (2005).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efficacy on parenting behaviors in mother with young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3(8), 25-35.
- Kim, M. S., Kim, U. C., & Park, Y. S. (2012). Comparison of attitudes toward children among mothers of young children and maternal grandmothers: With specific focus on ideal number of children, gender preference, expectation old age security and positive and negative values of children.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and Social Issues*, 18(1), 127-152.
-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12). Childcare support must accommodate various parents' needs. *Childcare Policy Brief*, 6(8). 1-4.
- Kwon, Y. E., Kim, U. C., & Park, Y. S. (2005). Intergenerational analysis of family values among Korean mothers: With specific focus on values of children, socialization attitudes, and support of elderly parents. *Korean Journal*

- of Clinical Psychology and Social Issues*, 11(1), 109-142.
- Kwon, Y. H., & Na, J. H. (2010). Effects of infant behavioral characteristics and maternal childrearing variables on their parenting stress.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1, 295-311.
- Kwon, Y. E., & Kim, U. C. (2004). Value of children and fertility.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al*, 13(1), 211-226.
- Lerner, R. M., Castellino, D. R., Terry, P. A., Villarruel, F. A., & McKinney, M. H. (1995). *A developmental contextual perspective on parenting*. Hillsdale, NJ: Erlbaum.
- Liedloff, J. (1985). *The Continuum concept: In search of happiness lost*. New York: Da Capo Press. Kang, M. K. translation (2011).
- Lee, D. G., & Hwang, J. M. (2008). The difficulties and joys of an inexperienced mother who nurtures an infant.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2(5), 103-132.
- Lee, I. H., Park, J. E., & Choi, S. Y. (2010). The structural relationship of parenting stress,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ing behavior of mothers with infants.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19(4), 81-91.
- Lee, J. O. (2008). Maternal parenting stress, efficacy and behavior: A comparative study between mothers with infants and those with kindergarteners. *Journal of Young Child Studies*, 11, 41-61.
- Lee, J. Y., & Lee, S. H. (2012). Parenting behavior of mothers with infants and toddlers: Comparison among sub-scales of parenting behavior.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12(1), 111-130.
- Lee, K. H., & Seo, S. J. (2009). Effects of infant and maternal demographic characteristics, maternal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maternal self-efficacy, and maternal parenting stress on infant development.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7(3), 87-102.
- Lee, S. M., & Lee, S. Y. (2009). Parents of infants and toddlers' difficulties in parenting and expectations for support. *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26(2), 305-307.
- Lim, S. H., & Park, S. H. (2010). The relation of mothers' socioeconomic status and a number of children to parenting stress and toddler's expressive vocabulary.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7(1), 251-278.
- Moon, Y. K., & Min, H. S. (2012). The effects of infant's temperament, development,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infant mother's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1(1), 59-71.
- Park, I., H., Kim, J. S., Kang, S. Y., & Cho, I. S. (2007).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parenting self-efficacy, and parenting stress among infant mothe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11(2), 211-223.
- Park, S. S. (2004). A study on the parenting stress of the dual-earner mothers and fat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eongju University, Cheongju, Korea.
- Rabin, A. (1965). Motivation for parenthood. *Journal of Projective Techniques*, 29, 405-411.
- Rabin, A. I., & Greene, R. J. (1968). Assessing

- motivation for parenthood. *Journal of Psychology*, 69, 39-46.
- Ridley, M. (2003). *Nature via Nurture: Genes, experience and what makes us human*. New York, NY: Harper Collins.
- Seligman, M. E. (2002). *Positive psychology, positive prevention, and positive therapy*.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Seligman, M. P. (2004). *Authentic happiness: Using the new positive psychology to realize your potential for lasting fulfillment*. New York, NY: Free Press. Kim, I. J. translation (2006).
- Seligman, M. P., & Csikszentmihalyi, M. (2000). Positive psychology: An introduction. *American Psychologist*, 55(1), 5-14.
- Seo, Y. H., Hong, W. H., Lee, B. H., Lee, S. W., & Hwang, S. I. (1995). *Are Humans Determined by Genes*. Seoul: Myung-kyung.
- Seo, E. K. (2014). *The origin of happiness*. Gyeonggi-do: 21st CenturyBooks.
- Sohn, S. M. (2012). Parenting stress and related factors of employed and non-employed mothers with infants.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9(1), 331-357.
- Statistics Korea (2013a). Statistics on marriage and divorce in 2013. Press release (2014. 04. 22.)
- Statistics Korea (2013b). Current statistics on one-parent households. Data updated (2013. 01. 02.)
- Sung, T. J. (2007).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modern basic statistics*. Gyeonggi-do: Kyoyookbook.
- Tak, J. K. (1996). *Psychological testing: Understanding development and evaluation methods*. Seoul: Hakji-sa.
- Taylor, S. E. (2002). *The tending instinct: How nurturing is essential to who we are and how we live*. New York, NY: Times Books. Lim, J. W. translation (2008).
- Veevers, J. E. (1973). The social meaning of parenthood. *Psychiatry*, 36, 291-310.
- Wilson, E. O. (1978). *Consilience: The Unity of knowledge*. New York, NY: Alfred A. Knopf.
- Yang, M. S., & Kim, Y. E. (2012). A study on the level of mother's parenting stress. *The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8(3), 229-247.
- Yom, H. C., & Cho, S. Y. (2007).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and empathy on motivation for parenthood and definition of parenthood. *Korean Journal of Community Living Science*, 18(4), 555-567.
- Yoo, G. S., & Chung, H. S. (2002). Young adults' perceptions of meanings and motivations of parenthood. *Journal of Korean Home Motivations of Parenthood*, 20(3), 39-47.

---

Received July 31, 2014

Revision received September 26, 2014

Accepted October 14, 2014